

# “준비부터 응모까지 체계적인 관리”

### 전북도, 중앙공모 선정 국비 200억원 확보... 전년 대비 105억원 증액

전북도는 2월까지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등 중앙공모 12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2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연초 중앙공모 사업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한 결과이다.

2월까지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순창, 150억원)은 미생물 보존·배양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 분석 및 효능 시험을 통한 지역의 미생물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5건, 10억원)(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 축제 지원) 및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전라북

도문화관광재단, 4.4억원) 선정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행사 등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7개 기관, 22억원)은 지역의 일자리 과제를 해결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자 농생명·농식품 특화인력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

획이다. 그 외에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김철모 정책기획관은 “3~4월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 공모사업에 우리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응모 단계까지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도·시군·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대응하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수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상시 발굴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업유치원 개학연기 현장실사 발표를 하고 있다.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날개 달다

###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익산 공모 선정... 국비 11억원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주시 삼천동과 익산시 모현동에 신규 조성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1월 농식품부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전주와 익산이 선정·확정되어 직매장 조성

에 국비 11억원이 지원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비는 전주에 5억원, 익산에 6억원이다.

현재 도에는 3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으며 2018년도 매출액은 928억원이며, 전주와 익산에 규모 있

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할 경우, 전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은 1,000억원에 이르러 그만큼 농가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올해 로컬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1천만원을 투입해 직매장 운영과 로컬푸드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로컬푸드의 확장성을 위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해 지속가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농촌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조호일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국비지원 직매장사업 선정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유통구조 정착이 공고히 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로컬푸드가 소비자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재해위험저수지 안전하게 ‘탈바꿈’

### 도, 28개소에 61억원 투입... 집중호우대비 홍수대응 능력 높여

전북도가 올해 재해위험저수지 28개소에 61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저수지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도는 2013년부터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97개소의 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46개소를 정비

했다. 올해는 국비 및 지방비 61억원을 투입해 남원시 옥전제 등 총 28개소(신규9, 계속19)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제체보강, 덧쌓기를 통한 여유고 확보, 취수시설 보강

으로 근원적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사태로 하류지역 주민보호가 가능하도록 수위계측기 설치와 수위조절을 위한 긴급방류시설 등 홍수에 방식시스템 구축으로 홍수대응 능력을 높인다. 또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저수량이 감소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사업 병행으로 가뭄대비 안정적 물관리에도 효과가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수지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위협이 있는 저수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에도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군산시 읍내제 등 8개 저수지에 대하여 3억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긴급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우기 전에 현장조치를 하고 대단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2020년 이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에 머리 맞대

### 관광객유치활성화 간담회 열어

전북도가 2019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4일 도청에서 민·관·학계가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오는 6일에는 전북도 전담여행사 10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도는 그간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5개 핵심사업(관광홍보관운영 및 세일즈플,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 활동, 전북STT브랜드상품마케팅, 외국인전용셔틀버스 운영, 미디어를 연계한 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을 중심으로 전북 관광브랜드 홍보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4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운동목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민간위탁 기관별로 단체 대표와 실무자의 2019 해외관광마케팅 주요사업 방향을 설명한 후 학계전문가(호원대학교 심인보교수, 예술예술대학교 김운우교수 등)의 국제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해 전라북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특히 관광마케팅 사업은 민·관·학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공동협력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자유토론에서



는 민간위탁기관과 관련 전문가 간에 전라북도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 6일 도청에서는 전북전담여행사 지정서 수여식과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북도 전담여행사는 도에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해마다 우수한 여행상품 기획 및 운영을 심사하여 선정된다.

올해 전담여행사는 총 10개사(국내관광객 유치 여행사 5개사,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5개사)로 주요관광지 및 축제장 등을 연계한 여행상품 기획 및 홍보와 모객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 지난해 전북도 전담여행사는 1만1,2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패턴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요즘 관광객은 체험이나 공유를 좋아한다”면서 “민·관·학 협력마케팅을 통해 여행체험 1번지, 전라북도 구원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3·1운동의 함성 계속 이어나간다

### 도, 독립운동사 학술적 재조명·독립유공자 발굴 등 전북 역사인식 정체성 확보 위해 기념사업 지속 추진

3월을 맞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북 역사인식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도에서는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독립국악원 주관 국악관현악 특별공연을 비롯해 3.1운동 전야제와 기념일 행사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들을 이어나갔다.

이제 3~4월에 집중된 100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 되면 전북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자료발굴과 전북 3.1운동사 제작을 비롯해 각종 학술·교과 및 문화·예술행사를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3·1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을 연계한 역사적 가치를 부각해 전라북도의 특색을 살리는 기념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도내에는 후손이 없거나 미추서 등으로 미등록된 독립유공자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도에서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북 3.1운동사 책자에 기록하고 포상신청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력해 독립운동사 후손 찾기도 적극 나서고, 희생과 헌신으로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사업도 진행한다.

3.1만세운동과 독립의 의미를 담은 모든 독립선언서를 전주 한지로 제작해 영구 보존하고, 학술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 및 이어쓰기 운동도 전개한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쌀 수탈자인 군산 장미동을 대상으로 구성된 기획전, ‘바람부는 날은 장미동에 간다’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도내의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통해 도내 7개 권역별로 도내 박물관에 소장된 3.1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 특별 순회전시회를 통해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9월에는 3.1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연관성을 조명하고 3.1운동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찰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광복회 등 보훈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모든 기념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